



# 스승의 책을 펴고 신학의 길을 묻다

## 이신건 교수와 함께 떠나는 북 콘서트 제자들이 이 교수 저서 서평·책 나눔도

제자들이 스승을 위해 북 콘서트를 열었다. 서울신학대학교 이신건 교수(조직신학)의 제자들은 지난 6월 3일 우석기념관 강당에서 '이신건 교수님과 함께하는 북 콘서트'를 개최했다. 학문연구에 열정을 바친 스승에게 감사와 존경을 표현하기 위해 제자들(이신건 교수를 사랑하는 제자들의 모임)이 마련한 자리였다. 스승을 위해 책을 만들어 봉정하는 경우는 있지만 스승을 학문성과 연구 저서를 기념하기 위한 '북 콘서트'는 처음이었다.

신학서 시절 이신건 교수로부터 조직신학을 배운 박영식 박영범 이응봉 오성욱 장기영 김성호 박사 등이 이 교수가 최근 5년 동안 발간한 조직신학 서적 5권의 서평을 했다. 다소 무겁고 딱딱한 신학 서적 서평이 이어졌지만 스승을 위한 자리인 만큼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 서평 사이에 이뤄진 행운권 추첨과 노래 등은 북 콘서트를 더욱 즐겁고 유쾌하게 만들었다.

학생의 위치가 아니라 신학을 전공한 학자로서 서평한 제자들은 한결같이 이 교수의 박식

함과 학문성에 경의를 표했다. '교회에 대한 이해와 이해'를 서평한 박영범 박사는 "교회론을 일반인도 읽을 수 있도록 쉽게 풀었지만 교회에 대한 날카로운 비평도 읽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장기영 박사도 '인간의 본질과 운명'을 서평하면서 "저자의 박식과 지적인 솔직함에 감탄했다"고 소개했으며, 박영식 박사는 '예수의 정체와 의미'의 서평에서 "복음서가 보여주는 예수의 삶과 죽음, 부활을 우리 앞에 와 있는 듯이 재구성했다"고 설명했다. 김성호 박사는 '조직신학입문'의 비평으로 "칼 바르트, 윌리엄 몰트만, 디트리히 본 회퍼의 신학을 한 번에 알 수 있도록 잘 정리되었다"고 말했다.

이신건 교수는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인데 이런 시간을 마련해줘 고맙고 민망하다"며 "이번 콘서트가 조직신학에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축사를 전한 유석성 총장은 "성경교단의 신학자로서 은퇴하기 전까지 교단 조직신학의 대계를 세우 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나온 이 교수



서울신대에서 열린 이신건 교수와 함께하는 북 콘서트. 첫줄 왼쪽부터 신익수 목사, 유석성 총장, 이신건 교수, 김신덕 사모.

의 연구서적 출판비를 전액 지원한 서울수정교회 신익수 목사도 "매우 뜻깊고 감사하고 마음이 훈훈하다"고 북 콘서트를 축하했다. 또한 현재 조직신학을 배우고 있는 제자 150여 명도 참석해 스승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다. 책이좋은사람들(신앙과지성사)에서 참석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 교수의 저서를 경품으로 나눠주었다.

이신건 교수는 서울신대 신학과와 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을 졸업한 후 독일 튀빙겐대학에서

윌리엄 몰트만 박사의 지도로 '칼바르트의 교회론 형태와 발전'이라는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는 1995년 석연치 않은 이유로 서울신학대학교 재임용에서 탈락했지만 좌절하지 않고 성경신학연구소를 만들어 신학연구에 매진했다. 이때 어린이신학과 평신도를 위한 눈높이 조직신학을 집필하는 등 왕성한 연구, 저술활동을 벌였다. 그는 2006년 서울신대 교수로 복귀해 지금까지 조직신학을 가르치고 있다. 박종연



## 제7회 고어헤드 사랑의콘서트 열려 서산교회서 진행, 아이비리그 탐방 초청도

서산교회(이가용 목사)는 지난 6월 1일 제7회 고어헤드 사랑콘서트를 개최했다. 고어헤드코리아 서산·당진지부(대표 이진수 목사)가 주관 한 이 콘서트는 15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고어헤드 사랑콘서트는 전 개구먼 이현주 집사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찬양사역자 서성은 집사, 네 손가락의 피아니스트 이희아, 아르토오페라단 단장 유재민, 신인 걸그룹 타픽(TOP.I.C), 대전성심원 오케스트라 소리향기팀이 출연해 다양한 무대를 연출했다.

고어헤드선교회는 국내 어려운 가정의 어린이 100만 명과 전 세계 100만 명의 고아와 결손가정의 아픔들을 지원하는 단체이며, 미국에 본부를 두고 지도자대회와 명문 8개대학 아이비리그 탐방에 국내 아이들을 초청하여 큰 꿈과 비전을 심어주고 있다. 이번 콘서트도 그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추첨을 통해 참석자 중 2명을 올해 하반기 미국 지도자대회와 아이비리그탐방에 초청했다.

문혜성

## 새음반 소개 | 하모니

### 한일 CCM레퍼들의 첫 싱글앨범 국경 초월한 신앙의 교류, 음악으로 표현

CCM 힙합 콘서트 '4 Christ Show'에서 인연을 맺은 한일 CCM 레퍼들이 싱글앨범 '하모니'를 발표했다. 이번 앨범에는 일본 CCM 그룹 라이오니아의 안지키 조이와 한국 CCM 힙합 뮤지션 등 10명의 레퍼가 모여서 작업했다. 국내에서는 니코르루세이더즈, 히스람, 훌리 크루 등 5팀이 참여했다. 이번 싱글앨범은 지난 4월 일본에서 먼저 발매된 라이오니아의 두 번째 앨범 '파시블(possible)'에 수록됐으며, 국내에는 디지털 싱글 형태로 발매됐다.

빠르게 반복되는 랩 속에 복음을 담은 곡 '하모니'는 힙합 장르와 한국어·일본어가 섞인 찬양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이들은 한 성령 안에서 다채로운 언어의 리듬과 영혼을 사랑하는 외침으로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룰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이번 앨범에 참여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이번 앨범 작업과 한일 연합 콘서트를 통해 양국의 CCM합의 발전을 함께 도모하는 등 아시아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통로를 개척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최혜



## 힐송유나이티드 세 번째 내한공연 '인기'

### 합창 찬양 예배 진풍경

세계적인 모던 워십 그룹 '힐송유나이티드'의 세 번째 내한공연 'Live worship in Korea 2014'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지난 6월 8일 을림교회원 체조경기장에는 전국에서 모인 젊은 크리스천 8000여 명이 합성을 쏟아내며 찬양으로 하나가 됐다. 힐송유나이티드는 한국에서 번안된 히트곡을 다수 배출해 젊은 크리스천 사이에서 유명한 팀으로, 이들의 방문은 2006, 2011년에 이어 세 번째다.

이날 힐송유나이티드는 시온산을 형상화한

무대에서 약 2시간 동안 새 앨범 'Zion' 삽입곡과 히트곡 등 20여 곡을 선보이며 한국 크리스천들을 찬양예배 속으로 빠뜨렸다. 관중의 뜨거운 함성 속에 공연은 새 앨범 첫 번째 수록곡 'relentless' 등 빠른 비트의 세 곡을 연달아 연주하며 시작했다. 이후 'hosanna' 'love is war' 'sing it out' 'aftermath' 'oceans' 등이 이어졌다.

리더 조엘 휴스턴은 "평범한 사람들 들어 쓰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며 "있는 그대로 우리의 모습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비참함도 영광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게 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했다. 찬양 'with everything'을 마지막으로 힐송유나이티드가 무대에서 사라지자 관객들은 그들의 히트곡인 'your name high'의 후렴구를 따라 부르며 '앙코르' 없는 앙코르를 외치기 시작했다. 그렇게 3분여 지났을 때 멤버들이 다시 무대에 올라와 'your name high'와 'wake'를 선보였으며, 'alive'로 모든 공연을 마쳤다.

이번 공연에서 관객들은 영어 가사에도 불구하고 한 목소리로 합창 찬양해 눈길을 끌었다. 관객들은 다른 사람의 시선을 상관하지 않고 자유롭게 무대 위를 뛰어다니며 찬양하는 힐송유나이티드의 모습을 따라서 자유롭게 온 몸과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다.

음악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힐송의 모습이 청소년들에게 더 빨리, 더 매력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 최혜



# 바나바훈련원 2014년도 여름 수련회

### 청년·청소년 영성 훈련

- 청 년 : 2014년 6월 30일(월) ~ 7월 2일(수) - 훈련비 : 6만원
- 청소년 : 1차) 2014년 7월 28일(월) ~ 31일(목) - 훈련비 : 7만원      2차) 2014년 8월 4일(월) ~ 7일(목) - 훈련비 : 7만원
- 주 제 : 코미.말을 심어 가꾸는 비전\_Bridge 01. Vision
- 내 용 : 성경적 비전 원리, 청년·청소년의 거룩, 기도훈련, 청년·청소년 교회 부흥 사례 및 우리교회 적용하기, 성부(거룩한 부자)원리, 찬양과 경배의 예배
- 강사진 : 김정호 원장(바나바훈련원), 신길원 선교사(ANN), 황영철 목사(산동교회), 이기철 목사(월광교회), 정진국 목사(마산상남교회), 이동현 선교사(이집트) 신석우 교수(미국 MIT공대), 김경태 목사(홍성교회), 이상우 목사(내덕교회), 유정민 선교사(캠바훈), 김성일 전도사(울화교회), 송지은 전도사(비하교회) 김민구 목사(바나바훈련원) STAFF : 바나바훈련원 본부스텝, 캠퍼스, 전도특별팀



원장 김 정 호 목사



이사장 김 창 배 목사

### 치유 받은 치유재 전인치유 수양회

2014년 8월 14일(목) ~ 16일(토)

- 대 상 : 청장년
- 목 표 : 바나바훈련원의 평신도 훈련의 일환으로 몸과 마음과 영의 전인적 치유와 회복, 해방과 자유를 얻게 한다.
- 내 용 : 치유의 하나님, 치유의 세계, 마음의 치유, 영의 치유
- 강 사 : 김창배 목사(영광교회) 김정호 목사(바나바훈련원) 이승호 목사(기성 선교사) 외 바나바훈련원 전문 강사진
- 훈련비 : 7만원

한국교회의 부흥과 세계선교의 일꾼을 세우는 **바나바훈련원**

충북 청원군 옥산면 금계길 37, 전화 : 043)235-0688, 팩스 : 043)235-9602  
홈페이지 : www.barnabas-bn.com, 이메일 : junggho304@hanmail.net  
원장 : 김정호 목사 010-5375-0289, 간사 : 김민구 전도사 010-5021-2382